



한국거래소, 청소년 자립지원 후원금 3억 '쾌척'

한국거래소는 6일 한국거래소 본사에서 부산지역 아동복지 시설의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한 'KRX 드림나래' 후원금 3억원을 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에 전달했다. (왼쪽부터)김희석 초록우산어린이재단 부산지역본부장과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KRX 드림나래' 후원금 전달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SKT, '2기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 개최

SK텔레콤이 5일 서울 을지로 사옥 T워에서 제2기 스포츠 꿈나무 후원식을 열었다. 이번 2기 후원에서는 기존에 5종목 5명이었던 경기력 우수 선수를 8종목 10명의 선수로 후원폭을 넓혔다. (앞줄 가운데)오경식 SKT 스포츠마케팅 담당 등 후원식에 참가한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SKT



포스코그룹, '기업시민·ESG' 교과목 확대 운영

포스코그룹이 올해에도 국내 주요 대학과 연계해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을 운영한다. 포스코그룹은 국내 9개 주요 대학과 연계해 운영하는 '기업시민경영과 ESG' 교과목 프로그램을 올해 12개 대학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기업시민경영과 ESG 과목은 탄소중립, 사회적 가치 창출, 지역 발전 등 다양한 기업경영 이슈를 주제로 학생들과 토론하며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문제 기반 학습 수업이다. /포스코그룹



현대건설, 글로벌 소형모듈원전 사업 본격화

현대건설은 지난 5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주영한 국대사관에서 미국 홀텍 인터내셔널과 함께 영국 발포어 비티 및 모트 맥도널드와 각각 '영국 원자력청 SMR 기술 경쟁 공동 참여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양국 정부인사가 참석해 원전산업 활성화 정책에 따른 공동의 관심사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현대건설

인사

◆우석대학교 △ 입학처장 조현철 체육학과 교수

부음

▲박태성씨 별세, 박민정·노준·윤정·윤신씨 부친상, 김민구(뉴스투데이 부국장)·윤현선씨 병부상, 김현주씨 시부상 = 5일 오후 6시25분, 발인 8일 오전 6시, 장지 경남 함양 하늘공원, 서울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지하 1층 2호실. 02)3410-3151  
▲정정명씨 별세, 정진욱(매일경제신문 기자)씨 부친상 = 6일, 빈소 아주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8일 오전 10시, 장지 수원시연화장. 031-219-4571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 카이스트 특별강연

“디스플레이 산업 성장 자신… 기술인재 동참해주시길”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 주제 강연 “산학협력 통해 새로운 미래 준비”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기술 인재들을 만나 미래를 제시했다. 삼성디스플레이는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최 사장이 특별 강연을 진행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삼성디스플레이, 상상을 뛰어넘는 여정’이라는 주제로 OLED 시장에서 리더십을 확보하기까지 과정과 미래 전략 등을 소개했다.

특히 최 사장은 학생들이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인재 확보 노력도 이어갔다. 강연장 밖에는 다양한 시제품을 전시하고, 256인치 초대형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로드쇼 트럭’으로 상상력도 자극했다.

최 사장은 디스플레이 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결 과제와 연구 영역이 무궁무진한 미래 기술이라 무한한 도전이 가능하다고, 디스플레이 엔지니어 경험이 산업



최주선 삼성디스플레이 사장이 6일 대전 카이스트에서 특별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최 사장은 ‘아임 파인 큐!’로 미래 비전을 요약했다. /삼성디스플레이

전문가로 성장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아임 파인 큐!’로 미래 비전도 요약했다. 노트북과 태블릿, 전장과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등 고성장 시장에서 리더십을 공고히하고 QD-OLED 화질을 경쟁력으로 프리미엄 시장을 적극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최 사장은 “삼성디스플레이의 모토를 ‘아름답고 멋진 우리의 미

레’라고 지었는데, 그 미래가 실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학생들 가슴 속에 있는 아름답고 멋진 미래 역시 삼성디스플레이와 함께 현실로 가꿔가길 기대한다”며 강연을 마쳤다.

한편, 이날 특강에 앞서 KAIST 본관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KAIST 디스플레이 연구센터 3기 협약식이 진행됐다. 협약식에는 최주선 사장, 이창희 연구소장(부사

장)을 비롯해 이광형 KAIST 총장, 이상엽 KAIST 연구부총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디스플레이-KAIST 디스플레이 연구센터는 차세대 디스플레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디스플레이 전분야를 양성하기 위해 지난 ‘14년 출범한 연구 기관으로, 올해로 3기를 맞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삼성디스플레이와 연구센터는 향후 5년간 미래 디스플레이 준비를 위한 산학 공동 연구를 진행하고, 이를 이끌어 나갈 차세대 글로벌 인재 양성에 적극 동참할 예정이다.

최주선 사장은 “지난 10여년간 대한민국 최고 대학 중 하나인 KAIST와의 협력을 통해 많은 연구성과를 이뤄냈고 이 과정에서 양성된 인재들이 지금도 회사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번 산학 협약을 통해 미래를 함께 준비하고 리더할 수 있는 또 한 번의 계기가 마련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대교협, 박상규 회장 취임… “등록금 인상 등 재정문제 해결 최선”

(중앙대 총장)

박 회장, 대학 자율성 실현 강조 “등록금 관련 규제 철폐돼야 마땅”

박상규 중앙대학교 총장(사진)이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제28대 회장에 취임했다. 박 회장의 임기는 3월 1일부터 1년이다.

대교협은 7일 오후 4시부터 대교협 대회의실에서 박상규 회장 취임식을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신임 부회장은 정성택 전남대 총장, 변창훈 대구한의대 총장, 곽호상 국립금오공과대 총장이 맡는다.

박 회장은 미리 배포한 취임사에서 “고질적인 대학의 재정 문제, 학령인구 절벽 시대, 의대 정원과 R&D 예산 삭감, 무전공 제도 도입 등 연일 고등교육계가 들쭉이게 만들



고 있다”라며 “고등교육 전반이 발전의 길로 나아가길 바라며, 후퇴할 것인지는 갈림길에 선 중대한 시기 대학을 대표하는 회장직을 맡게 돼 막대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신임회장은 앞으로의 임기 동안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현재 대학들은 십수년간 이어진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인해 교육과 연구에 꼭 필요한 기자재 확보에서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적했던 것처럼 3년 평균 물가 상승률만큼의 등록금 인상을 단행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가 마련돼 있음에도 법적 근

거 없는 국가장학금 2유형과의 연계로 인해 등록금 인상에 차마 나서지 못하는 대학들이 태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학 내에서의 등록금 관련 의사결정이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이뤄진다는 전제하에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등록금 관련 규제는 철폐돼야 마땅하다”라며 “교육부와 단단한 파트너십 구축을 기반으로 대학들의 재정 건전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등록금 문제 해결에 협의회의 전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박 회장은 ▲고등교육 재정지원 확충 ▲대학 자율성 확보를 위한 각종 규제 개혁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에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박상규 회장은 1961년 출생해 중앙대 응용통계학과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통계학 석사, 미국 버펄로 대학교(State University of New York, Buffalo)에서 통계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부터 중앙대 응용통계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입학처장, 기획처장, 미래기획단장, 행정부총장 등의 학내 보직을 두루 거쳤으며, 2020년부터 중앙대 총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그동안 전국대학기획처장협의회 회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 한국장학재단 비상임이사, 교육부-한국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정책 공동 TF 위원, 교육부 갈등관리심의위원회 위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현정 기자 ihj@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모집

현대차정몽구재단

사회문제 해결 기업가 육성 나서

현대차 정몽구 재단이 창의적 혁신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할 기업가 육성에 나선다.

현대차 정몽구재단은 오는 27일 까지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 12기에 참여할 ‘임팩트 스타트업’ 20개팀을 모집한다고 6일 밝혔다. 임팩트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활동으로 창출하는 가치가 사회와 환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이라고 재단은 소개했다.

재단은 ‘인큐베이팅 트랙’에서 10개팀, ‘엑셀러레이팅 트랙’에서

10개팀을 선발해 총 20개팀에 재정적 지원과 글로벌 진출 지원, 경영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재단 정무성 이사장은 “매출과 성장 가능성만이 아닌 창의적 혁신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서고자 하는 기업가정신을 중요한 심사항목으로 평가할 것”이라며 “스타트업의 새로운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며 소셜 임팩트 플랫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단은 지난 12년간 H-온드림 스타트업 그라운드를 통해 임팩트 스타트업 334개팀(중복 포함)을 지원했고, 6103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양성운 기자 ysw@

한화, 내달 ‘2024 교향악축제’ 개최

KBS 교향악단 개막 공연

한화큐셀이 한 달여간 대한민국 대표 23개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해 감동을 선사한다.

한화가 후원하는 (한화와 함께하는 2024 교향악축제, The Wave)가 4월 3일 KBS교향악단의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4월 28일까지 서울 예술의전당콘서트홀에서 열린다.

국내 음악계에 최고의 역사와 권위를 자랑하는 교향악축제는 매년 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으며 관객들을 만나왔다. 36회를 맞은 올해 교향악축제는 ‘The Wave’라는 부제 아래 23개의 오케스트라가 아름



다운 클래식 선율의 물결을 일으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36년의 역사에 걸맞게 역대 최대 규모의 교향악단이 참여해 풍성하고 화려한 클래식 공연을 선보인다.

한화와함께하는 2024교향악축제는 예술의전당 홈페이지와 콜센터, 인터파크에서 예매 가능하다.

/차현정 기자 hyeon@

